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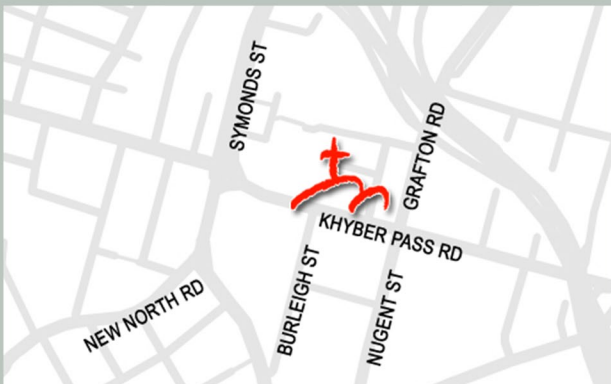
우리 갈보리교회를 처음 방문해주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담임 목사와 만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배 후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1. 말씀 묵상에 동참한 성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 말씀을 가까이하는 경건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2. 하반기 성경공부를 안내합니다. 신청 바랍니다.
과목: 신앙의 토대
개강: 주일반 9월 29일, 평일 낮반 (화, 목 중 선택) 기간: 10 주 교재비: \$25
3. 지난 주일에 실시한 항존 직분자 선출 결과입니다.
안수 집사 피택/ 이정인 집사 권사 피택/ 김선화 집사
4. 다음 주일은 권사 기도회 주일입니다. 기도로 교회를 세우는 어머니들이 되십시오.
5. 오는 25일 수요일 예배는 터키 공동체 주관입니다. 함께 협력하여 잘 준비하기 바랍니다.
6. 지난 수요일 노회 연합예배에 여러 분야에서 섬겨주신 성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7. 바누아투 삼마 교회 헌당식에 참여할 성도는 신청 바랍니다.
헌당예배: 2019년 10월 30일(수)
8. 오늘 말씀 전한 총회장 이기성 목사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9. 이태한 목사는 일본에서 열리는 총회 임원 회의 차 내일 (16일) 출국합니다(24일 귀국).

[9월 교회 사역 일지]

25일 (수): 터키 공동체 주관 예배
29일 (주일): 성찬주일

INFO



[예배시간안내]

주일 1부예배	주일	11:20 am
주일 2부예배	주일	1:00 pm
청년예배	주일	3:15 pm
수요일예배	수	7:30 pm
새벽기도	금	5:30 am
유아부	주일	1:00 pm
청소년부	주일	1:00 pm

[섬기는사람들]

담임목사	이태한
부목사	이성철
부목사	이성훈

www.calvary.org.nz
www.youtube.com/calvaryorgnz
www.koreaniptv.co.nz

70 Khyber Pass Rd, Grafton, Auckland
(Ph) 09-369-5077 (Mb) 021-968-388
LTH-07@calvary.org.nz



해/외/한/인/장/로/교/회
갈보리교회
교회창립 1999 / 07 / 18

2019/09/15
21권 37호

배우고
확신한
앞에
거하라

디모데후서 3:14

주일에배 1부 오전 11시20분 2부 오후 1시 인도:이태한목사

찬양	-----	주일 찬양단
예배로부름	시편 48:9-10	인도자
찬송	43장	다같이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같이
찬송	270장	다같이
대표기도	-----	박병민 장로
성경봉독	창세기 24:1-9	인도자
찬양대찬양	주는나의목자	나무십자가찬양단
설교	종으로사는기쁨	이기성 목사
찬송	453장	다같이
헌금기도	-----	인도자
교회소식	-----	인도자
응답송	445장	다같이
축도	-----	이기성 목사

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헌금은 들어오실 때 봉헌함에 봉헌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일예배	오후 7시30분	청년예배	오후 3시 15분
기도	이애란 권사	금주기도	김준섭 형제
성경봉독	마태복음 26:36-45	다음주일	오혜윤 자매
설교	[기도의 능력] 이성훈 목사	- 매주 금요일 오후 6시에 청년부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찬송	361장		
주기도	다같이		

[9/10월 기도 순서]

9월 22일 (주일) / 손조훈 집사
9월 25일 (수) / 이해경 집사
9월 29일 (주일) / 정관영 장로
10월 2일 (수) / 정진택 집사

[9월 예배 봉사자]

예배 안내 / 박병민, 김자경
새신자 안내 / 차영철, 심경순
주차 안내 / 민광호
주방 봉사 / 박제란, 김명옥, 박영선 A

이번주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김현수 선교사 소식입니다.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멀리 남아공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8월 한 달 동안 있었던 사역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아동부 전동 무용단원들과 어린이들에게 양말과 털 모자를 선물하며 격려했으며 유스 그룹은 단기선교를 온 형제가 유스 시포에게 자신의 자켓을 벗어 주었고 가져온 중고 옷들을 골라 입혔더니 시골스럽던 아이들이 살아납니다. 요즘 실족했던 유스들이 주일예배와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석하고 있습니다. 또 8월 여성의 달을 맞아 성도들과 지역 여성들을 초청하여 그룹으로 성경공부를 하고 가정과 교회와 지역사회에서의 여성의 중요한 역할에 대해 교육 및 훈련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스티브 목사가 한 달에 한번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는 데 이번 바자회에 필요한 것을 많이 주셨고 윤광식목사님 내외분께서 방문하여 선교사를 격려해 주시며 떡과 함께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해 주셨는지 선교사는 물론 온 성도들이 말씀에 은혜를 받고 많은 힘을 얻었습니다.

목회자 멘토링 세미나가 김영봉 목사님 (사귀의 기도 저자, 미국 워싱턴 전 한인 감리교회)께서 오셔서 2박 3일 케이프타운 선교사들을 섬겨주셨고 북 콘서트를 통하여 저자와의 대화, 사인회를 하였습니다. 김유진 목사님(미국 백인 감리교회)께서도 현지 선교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해 주셔서 많은 선교사들이 깨달음과 배움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8월도 참으로 분주하게 보낸 것 같습니다. 교회는 사역자 아띠와 유스 난다의 불순종으로 어수선했으나 교회의 질서를 바로잡는 차원에서 이에 대한 치리가 내려졌는데 교회를 방해하는 주변 세력들이 이들을 이용하여 선동했지만 이제 모든 것이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데 여전히 산고의 수고가 따릅니다. 뒤에서 보내 주시는 기도 덕분에 선교사가 자리를 지키고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름 없이 값없이 보내 주시는 기도와 후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영혼 구원을 위해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8월 28일 김현태 맹연수 선교사

기도 제목

1. 현지 교회가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잘 세워지도록.
2. 선교지를 방문하는 단기 선교팀이 현지인에게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도록.

1. 진리의 공동체, 예수 공동체로 거룩한 영향을 지역사회에 나타내는 교회가 도록.
2. 영육의 질고에서 해방되고 삶의 소외에서 주님의 위로를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3. 말씀 묵상이 있는 섬김, 기도가 있는 헌신의 성도가 되도록.

신앙인과 명절

3주 전이었습니다. 장연식 집사가 뭔가 가득 담긴 함을 제게 주었습니다. “목사님 송편입니다.” “웬 송편을요.” 주석이 얼마 남지 않아서 미리 송편을 만들어 보았다면서 제게 시식을 해보라는 뜻이었습니다. 정말 맛있었던 송편 같은 반달이 싸랴문 위에 떠는 주석이 어저께 지났습니다. 올해 9월달은 유난히도 많은 성도들이 한국을 방문하는 데는 주석 명절을 부모 형제들과 함께 하기 위한 수구초심의 발로인 것 같습니다.

이국땅에서 믿음의 달음질을 하며 이민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슴이 짠한 일상이 있다면 아마도 부모님의 임종을 지키지 못할 수 있다는 것과 명절에 형제들, 친지들과 함께하지 못하고 고향 쪽 하늘만 쳐다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곳에서 17번째로 주석을 보냈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는 20번 25번씩이나 명절을 이곳에서 보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아마도 앞으로도 그러시겠지요? 20년, 25년을 살아가면 이제는 명절에 대한 느낌이나 향수가 사라질 법 한데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자리하고 있고 세월이 가면 갈수록 향수가 시리도록 더 짙어져 가는 것은 무슨 연유이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나그네이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나그네”라고 분명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히브리서 11:13). 나그네라는 말은 고향이 아닌 다른 곳에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과 또 언제 가는 불현듯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나그네라는 말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분명한 목적을 저절로 지녀야 하는 인생에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향에 돌아가면 부모님께서 그동안 어떻게 살았느냐고 물을 것이고 자녀인 우리는 이렇게 살았다고 떳떳하게 대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았다고 대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타향살이 타국살이가 뭐 그리 감사할 일이 있었을까 하십니까? 살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감사가 아닙니까? 둘째, 고향을 한시도 잊지 않고 사모하며 살았다고 대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타국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았지만 고난과 아픔도 많이 있었지만 연연해 않고 본향을 바라보면서 길을 잃지 말고 진리와 믿음의 길을 묵묵히 잘 걸었다고 답하는 순례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히브리서 11:6) 고 고백한 믿음의 조상들 후예로 살았다고 당당하게 대답하기를 소망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전하는 삶을 살았다고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선을 행하고, 받은 은혜를 나누고, 믿음의 진보와 신앙인의 존귀함을 이웃에게 전했다고 답하기를 소망합니다.

이태한 목사

시편 133:1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